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 연구의 현황과 전망*

金仁杰**

1. 양안 연구의 현황과 쟁점
2. 양안의 분류 및 기재 양식 상의 특징
3. 양안 연구의 전망

1. 양안 연구의 현황과 쟁점

量案은 量田, 打量 등으로 불린 토지 조사를 통해 작성된 토지대장으로서, 田稅 징수 등 부세운영과 관련된 기본 장부이다. 이 양안에는 토지의 진기 상황이나 양전 당시의 토지소유 현황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세결수나 계층별 토지소유상황을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 일찍부터 사회경사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농업사 및 사회경제사 연구는 양안 분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양안이 갖는 자료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안 연구의 진전에 따라 양안이 갖는 자료적 성격과 각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분석 결과들에서는 상반된 견해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 견해차는 아직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안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초기 연구는 경자, 광무양안의 등재인물 통계 등을 통해 농민층 분화 현상과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고자 했다.¹⁾ 그러나 이 시기 양안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 수개의 개별 양안들을 통계 처리하는 데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양안에 등장하는 인명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2-A00005)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1) 김용섭, 1960 『量案의 研究(上), (下) : 朝鮮後期の 農家經濟』 『사학연구』 7, 8; 김용섭, 1963 『續量案의 研究(上), (下) : 朝鮮後期の 佃戶經濟』 『사학연구』 16, 17; 김용섭, 1968 『光武年間の 量田地契事業』 『아세아연구』 31(『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 농업개혁론·농업정책』 1988, 일조각에 재수록)

과 소유관계 등이 당대 농촌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가설 위에서 진행되고, 자료가 갖는 한계로서 양안 기재방식이나 등재 인물의 존재 형태 분석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미흡했다.

초기 양안 연구가 갖는 자료상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1980년대 후반 몇몇 경제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양안 상의 소유관계가 실제보다 영세하게 나타난다는 점, 양안에 등재된 인명이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²⁾ 또 그러한 현상이 경자양안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기 광무양안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광무양안 상의 '時主' 규정의 의미를 재해석하고,³⁾ 국가적 토지 소유의 문제를 제기하였다.⁴⁾ 이들은 토지 사유권이 일정하게 성장하였지만 '시주' 규정은 국가적 토지 소유가 사적 토지 소유를 제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근대적인 사적 소유권은 일제가 수행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광무양전사업은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前史로서 위치지어졌다. 이들 연구는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광무양안 등 이전 시기 양안들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했다.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한국사학계에서는 격렬하게 반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내제적 발전론과 소농사회론,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먼저 한국사학계는 경제사학자들이 국가적 토지소유론에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비난하였다.⁵⁾ 예를 들어 시주가 代錄·分錄되었다고 해서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경제사학자들은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 양안들의 자료적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보았다.

이 시기부터 한국사학계의 양안 연구는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먼저 광무양안을 실증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재 형식과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광무양안의 근대적 토지조사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켰다.⁶⁾

2) 이영훈, 1988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3) 이영훈, 1989 「광무양전의 역사적 성격: 충청남도 연기군 광무양안에 관한 사례분석」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이영훈, 1990 「광무양전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4) 宮嶋博史, 1990 「광무양안의 역사적 성격」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 高麗書林

5) 왕현중, 1991 「서평, 광무양전사업의 다양한 성격과 좁은 시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김홍식 외 4인 공저, 민음사, 1991)」 『역사와 현실』 5; 박명규, 1991 「낮은 논리의 새로운 형태: 宮嶋博史의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 비판」 『한국사연구』 75;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1992 「서평, '내제적 발전론'을 가장한 또 하나의 식민주의 역사인식: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91)」 『역사와 현실』 7

6)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199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토지대장연구반의 공동연구는 실증적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양안 연구들을 한 단계 뛰어넘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근대적·자주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에 과도하게 구속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 時作이 기재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근거 없이 경작권 보호라고 규정하였고, 이를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반농민성과 대비시키려고 하였다.⁷⁾

위 연구 이후에도 광무양전과 관련된 경제사학계의 주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⁸⁾ 그리고 지금까지 양측의 견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토지대장연구반은 경자유안과 관련한 공동연구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전 시행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밝히고,⁹⁾ 양안 기재 형식과 장부상의 특징도 분석하였다.¹⁰⁾ 그러나 그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지는 않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양안 연구에서 새로운 시도도 나타났다. 일반양안 이외에 이로부터 파생된 형태의 자료를 통해 양안의 자료적 성격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진행된 것이다.

경자유안과 관련해서는 각종 行審冊, 秋收記, 토지문기, 立案 등을 이용하여 양안과 고문서와의 관계, 양안 상의 戶名의 성격 등을 양안과 소유권과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시도들이 전개되었다.¹¹⁾ 광무양안과 관련해서는 내장원 등 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공도안들이 주목받았다.¹²⁾ 이는 역둔토 등 국유지 처리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토지조사사업과도 비교 대상이 되었으며,¹³⁾ 대한제국 재정을 둘러싼 논쟁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¹⁴⁾ 이와 같은 연구들은 양안과 소유권과의 관계, 나아가 양안

7) 이윤갑, 1995 「신간 서평, 대한제국의 양전·지계발급사업을 둘러싼 제2단계 광무개혁 논쟁: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민음사, 1995)」 『역사와 현실』 16

8) 이영훈, 1997 「量案 上의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 宮嶋博史, 1997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분석: 충남 논산군의 사례」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9) 이세영, 2001 「조선 숙종대의 양전의 정치학」 『조선후기 정치경제사』, 해안; 葉正섭, 2000 「숙종대 후반 양전론의 추이와 경자유전의 시행」 『역사와 현실』 36; 송찬섭, 2000 「숙종대 재정 추이와 경자유전」 『역사와 현실』 36(이상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08 『조선후기 경자유전 연구』, 해안 재수록)

10) 오인택, 2000 「경자유전의 시행 조직과 양안의 기재 형식」 『역사와 현실』 36; 김진태, 2008 「경자유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 『역사와 현실』 36(이상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08 『조선후기 경자유전 연구』, 해안 재수록); 김진태, 2009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한국사연구』 144, 한국사연구회

11) 葉正섭, 2006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의 토지 소유 관계」 『동아시아근세사회의 비교』, 해안; 오인택, 1996 「조선후기의 양안과 토지문서」 『부대사학』 20; 최윤오, 2000 「조선후기의 양안과 행정책」 『역사와 현실』 36(이상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08 『조선후기 경자유전 연구』, 해안 재수록)

12) 박진태, 1995 「대한제국 초기의 국유지 조사」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3) 조석근, 2003 「한국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안

14) 교수신문 기획·엮음, 2005 『고종황제역사정분회』, 푸른역사

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전제적인 문제들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양안 연구는 계속되었는데 대개 1990년대 토지대장연구반의 연구 성과에 기반해 있었고, 문제의식은 물론 연구자 그룹에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1990년대와 달리 경제사학과와 논쟁도 더 이상 전개되지 않고 있고 신진 연구자들의 등장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연구 시각이나 문제의식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에서 양안 연구가 일정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느낌을 주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래 토지대장연구반은 광무양안과 일제 토지대장 사이의 과도기적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형식과 내용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실체를 드러낸다는 점에 몰두해서인지 그러한 자료들이 갖는 의미나 새로운 연구가 기존 논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충북대 연구팀에서는 광무양안을 통해 지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군 규모로 자료의 폭을 넓혀서 소유관계를 재확인하고자 했다.¹⁶⁾ 그러나 학계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규모를 늘리고 전산입력 작업을 한다고 해서 양안이 기본적으로 갖는 자료적 한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다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절실한 시점이다.

2. 양안의 분류 및 기재 양식 상의 특징

양안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는 ‘내재적 발전론’과 ‘소농사회론’간의 논쟁, 광무양안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 등에서 극단적인 견해차가 노정되어 있다. 이러한 논쟁은 각 시기의 역사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양안이 갖는 자료적 성격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안의 자료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된다면 한층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나오게 된다.

15) 왕현중, 2007 「경남 창원지역 토지조사의 시행과정과 장부체계의 변화」 『역사와 현실』 65 ; 이세영, 2007 「1910~1945년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의 토지소유구조 변동」 『지역과 역사』 21 ; 이영학, 2007 「한말 일제하 식민지주의 형성과 그 특질 : 村井 進永農場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1 ; 최원규, 2007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경남 창원지역의 토지소유권 분쟁 :自如驛 倉屯 사례」 『지역과 역사』 21 ; 최원규, 2009 「일제초기 창원군 토지조사과정과 토지신고서 분석」 『지역과 역사』 24

16) 신영우 편, 2007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양안 자료의 활용 폭을 확대시키고 양안의 기본 성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의도 하에 본 연구원 소장 양안 및 장토문적을 기초로 하고, 다른 기관에 소장된 자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양안 자료의 목록을 정리,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각 양안의 기재 양식과 내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조사한 양안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574종을 포함하여 전체 1,713종에 이른다.¹⁷⁾

양안으로 통칭되는 자료에는 국가에서 양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庚子量案, 光武量案, 邑量案, 查陳量案 외에도 토지 소유자나 수세자가 자신의 소유지 및 수세지의 정보를 초록하여 기록한 양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작성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작성한 일반양안, 궁방에서 작성한 궁방양안, 아문에서 작성한 아문둔토양안, 대한제국기 公土의 조사안인 각도공토안, 기타(行審冊, 校院田畝量案, 개인양안 등)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과정을 통해 우선 작성 주체와 토지 소재지에 따라 양안의 분류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었다. 한 예로 毓祥宮 소속 궁방양안은 양안의 작성시기에 따라 淑嬪宮房, 淑嬪房, 毓祥宮, 崔貴人房, 崔淑儀房 등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육상궁으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다시 서명 상의 궁방명으로 중분류한 후 토지소재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작성주체별 및 지역별로 양안 자료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정 토지에 대한 양안의 존재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작성 주체를 파악하여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양안을 등출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행심책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는 기존 연구에서는 양안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로는 행심책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전답등별기』가 바로 그것이다.¹⁸⁾ 따라서 외견 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양안과 행심책을 구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궁방이나 아문 외에 개인도 양안에서 자신의 소유지 정보를 등출하여 토지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료는 특히 양안의 소유권 보호 기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다.

일반양안은 기본적으로 균현을 단위로 작성되며, 기재 양식도 통일되어 있다. 그

17) 種數는 도서번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내용별 종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18)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전답등별기』는 기존의 양안 연구에서 작성 시기가 쟁점이 되었는데, 조사 결과 양안의 원본이 아니라 양안을 등출한 행심책으로 裳紙가 제거된 형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러나 궁방, 아문, 개인 등 토지 소유자들이 등출한 양안은 필요에 따라 기재 양식을 변형하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양안들은 공히 균현양안에 기초하면서도 다양한 기재 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다양한 기재 양식 속에는 양안 작성자가 원하는 정보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양안의 기재 양식 정리를 통해 양안의 성격과 수록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양안을 분류하고 기재 양식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기재 양식이 다른 점도 주목되었다. 그 중 하나가 자호의 기재 방식으로 경자양안 상에는 ‘○字’가 일반적이지만 전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字丁’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¹⁹⁾ 이를 염두에 두고 기재양식이 다른 각도공도안 등을 제외한 1,340종의 기재 양식을 조사한 결과 ○字形, ○字丁형, 천자문만 기재한 ○형 등 세 가지 기재 형태를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 ○字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며, ○字丁 형태는 전라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안도의 경우 양안의 종류를 불문하고 字號를 생략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역별 字號 형식 분포(단위:種)

지역 \ 형식	○字形	○字丁형	○형	기타	생략	합계
강원도	35				8	43
경기도	202	3	5	1	41	252
경상도	176	1	1		59	237
전라도	154	*70	8		42	274
충청도	127	11	11		25	174
평안도	14	9		1	*70	94
함경도	5					5
황해도	145	24		1	46	216
한성부	4				4	8
기 타	7				2	9
미 상	7		4		17	28
합 계	876	118	29	3	314	1,340

궁방양안이나 아문양안, 개인양안 등 소유주나 수세자가 작성한 양안에는 일반 양안에 기재되지 않는 斗落-日耕數와 夜味數를 기재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와 <표 3>이다. 두락-일경수와 야미수는 17세기 후반의 궁방양

19) 오인택, 2000 「경자양전의 시행 조직과 양안의 기재 형식」 『역사와 현실』 38(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 연구반, 2008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해안 재수록)

안 등에서 이미 나타나지만 민간의 고문서에 비하면 이용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두락-일경수는 23%, 야미수는 17% 정도의 비율로 기재되었을 뿐이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지역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락-일경수는 평안도에서 기재된 비율이 높고(43.6%), 야미수는 경기도에서 기재된 비율이 높았다(40.9%).

표 2 斗落-日耕數 기재 현황(단위:種)

도명	○	X	합계
강원도	13	30	43
경기도	65	187	252
경상도	41	196	237
전라도	42	232	274
충청도	47	127	174
평안도	41	53	94
함경도		5	5
황해도	54	162	216
한성부	3	5	8
기타	5	4	9
미상	5	23	28
총합계	316	1,024	1,340

표 3 夜味數 기재 현황

	○	X	합계
강원도	8	35	43
경기도	103	149	252
경상도	21	216	237
전라도	22	252	274
충청도	22	152	174
평안도		94	94
함경도		5	5
황해도	14	202	216
한성부		8	8
기타	1	8	9
미상	6	22	28
총합계	197	1,143	1,340

위에서 제시한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된 사항만을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면 지역별 기재 양식의 특성이 보다 분명하게 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별로 기재 양식이 다른 것은 지역의 양안 작성 관행이나 농업 경영 상의 특성,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 토지의 성격 등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토지 소유 구조나 농업 경영의 특성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방양안, 둔토양안, 개인양안 등에서 기재 형식이 가장 다양한 항목이 주 기재 부분이다. 경자양안에서도 경상도, 전라좌도, 전라우도의 主名 기재 양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궁방양안 등의 용례에서는 동일지역이라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중에서 主人과 作人, 舊와 新을 구분하여 기재한 용어들의 용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主人과 作人 기재 형식 예시

구분	예시
主	(主-)舊-今, (主-)舊-時, 古-今, 量-時 主, 主時, 時, 時主 量, 量主, 甲量 本主, 賣主, 買主 戶, 戶率, ○○名付, 量戶, 帳, (時執) 등 인명
作人	作, 作者, 作人 時作, 時, 舊作-新作, (時執) 등 인명

위 <표 4>를 보면 양안 상에 주인명만 기재하게 된 것과 달리 작인을 파악한 경우도 있으며, 시간의 변동에 따른 변동이나 매매 관계까지 기재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개중에는 일반양안 상의 주인명을 그대로 등서한 경우도 있으나 조사 당시의 주인이나 작인 이름을 기재한 경우도 있어서 어느 시점의 상황을 파악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또 소유지와 수세지가 혼효된 궁방양안의 경우 ‘主’나 ‘作’을 구분한 경우도 있으나, ‘時’나 인명만 기재하여 주인인지 작인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作人으로 기재된 경우 중에도 실제로 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주인과 작인의 기재 양식이 다양한 것은 작성 시점 및 주체, 그 의도에 따라 다른 방식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양안의 기재 내용이 반영하는 상황의 時點, 토지 및 주인명, 작인명 등의 성격을 엄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앞에서 설명한 양안의 분류 방식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기재 양식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몇가지 사례들을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의 진행과 함께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양안의 형식과 내용이 무척 다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궁방양안이나 이문양안, 개인양안 등 소유주나 수세자가 작성한 양안에는 경자양안 상에 등장하지 않는 蘆田이나 개간지 양안도 상당하며 賭租, 收稅額 등 경영 정보가 수록된 경우도 많아 이를 일별하기는 어렵다.

이상 양안의 분류와 기재 양식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양상은 양안의 기능과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 농업 경영 양상, 토지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는 양안도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은 작업임을 알게 된다. 양안 자료에 접근하는 방식도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사 과정을 통해서 양안에 수록된 토지의 성격과 기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동일 토지에 대한 양안이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유효하였다. 아울러 양안 외의 여러 자료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內需司及各宮房田畝總結與奴婢總口都案』, 각 궁방의 회계 장부, 『度支田賦攷』, 『臨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도 참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양안 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양안 연구의 전망

양안은 조선후기~대한제국기의 토지 소유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다. 지금까지 양안을 이용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전개되었지만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양안과 소유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초기 연구가 양안 상의 주인명이 토지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통계 처리를 시도하였다면, 지금은 이에서 진일보하여 양반층에서는 戶名, 結名으로 주인명을 代錄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호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안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앞으로도 다각도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안 자료에 대한 분석은 주로 경자양안과 광무양안, 읍양안 등 일반양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반양안은 지역을 단위로 한 토지 소유 구조와 경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효한 자료이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소유와 경영 형태, 양안의 활용 양태를 보여주는 것은 소유주나 수세자들이 작성한 양안으로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연구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양안과 토지 소유권의 문제를 검토함에서 있어서 핵심적으로 활용된 자료 중 하나가 궁방양안이다. 궁방전은 소유지와 수세지가 혼효되어 있고 그 연원과 경영방식도 다기하며, 그 운영에 국가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특성도 있다. 이 때문에 궁방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궁방전의 변동 양상과 궁방 장토의 구성²⁰⁾ 및 궁방전

의 농업 경영 형태와 관리, 지대 등 수취구조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²¹⁾ 여기에서 궁방양안은 궁방의 토지 소유 구조와 농업 경영 구조를 파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궁방전 연구에서는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궁방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근래 국가의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毓祥宮과 宣禧宮의 연혁과 소속 궁방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²²⁾ 왕실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궁방의 분류가 시도되기는 하였지만²³⁾ 아직 궁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특히 內需司, 明禮宮, 龍洞宮, 於義宮 등의 연원과 기능은 왕실 제정의 운영 뿐 아니라 궁방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또한 궁방의 성격 파악을 통하여 궁방 양안도 보다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궁방양안은 일반양안과 달리 17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작성되어 양안의 기재 양식을 이해하는 기본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이를 이용하여 주 기재 양식이 검토된 상황이지만²⁴⁾ 궁방 양안의 기재 형식과 내용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양안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제국기 국유지 조사는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및 통감부,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중 국유지 문제의 한 측면,²⁵⁾ 내장원의 역둔토 경영,²⁶⁾ 통감부의 황실재산정리²⁷⁾ 등 다양한 관점에서

20) 박광성, 1970 「宮房田의 연구」 『인천교육대학 논문집』 5 ; 박준성, 1984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 이영훈, 1988 「宮房田과 衙門屯田의 전개과정과 소유구조」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한길사

21) 김용섭, 1964 「宮庄土의 관리 : 도장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8 ; 배영순, 1980 「한말 司宮庄土에 있어서의 權掌의 존재형태」 『한국사연구』 30 ; 이영훈, 1983 「19세기 농업변동의 일양상 : 경남 김해군 內需司庄土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6 ; 이영호, 1984 「18·19세기 지대형태의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동 : 宮庄土·屯土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1 ; 도진순, 1985 「19세기 宮庄土에서의 中畝主와 抗租 : 재령 여물평장토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3

22) 이현진, 2009 「영·정조대 육상궁의 조성과 운영」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 심재우, 2009 「조선 후기 선회궁의 연혁과 소속 장토의 변화」 『조선시대사학보』 50

23) 조영준, 2008 「19世紀 王室財政의 運營實態와 變化樣相」,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4) 이영훈, 1997 「量案 上의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25) 신용하, 1979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 한국연구원 ;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199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 김홍식 외, 199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 배영순, 2002 『한말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 영남대학교출판부 ; 조석근, 2003 『한국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6) 박찬승, 1983 「한말 역토·둔토에서의 지주경영의 강화와 抗租」 『한국사론』 9, 서울대 국사학과 ; 신인석, 1989 「구한말의 둔토관리와 소유권분쟁에 관한 연구 : 둔토에 있어서 국가적 토지소유의 정리·변질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재호, 1995 「대한제국 내장원의 역둔토 관리 :

의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국유지 조사의 결과를 담은 352건의 各道公土案이 거의 이용되지 못했다.

각도공토안은 1894년 갑오승총 이후부터 1907년 경리원 해체 시기까지 만들어진 ‘역둔토’ 관련 각종 조사 성책을 말한다.²⁸⁾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에 비추어 보면 첫째, 1895년부터 1896년까지 농상공부에서 탁지부공내부를 대리해 查辦委員을 보내 조사한 것, 둘째, 1897년부터 1898년까지 군부에서 역토와 일부 둔토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해 조사한 것, 셋째, 1899년부터 내장원에서 둔토와 역토의 관리권을 차례로 인수받아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분류된다.

공토안에는 당시 국유지로 파악된 衙門屯土, 宮房田, 官屯田, 驛土, 軍土, 砲屯, 鎭屯, 牧場土 등 다양한 토지를 파악하고 필지별로 전품, 지목, 두락, 일경수, 결부수, 작인 성명 등의 정보를 파악하였다. 도이상조에서는 두락, 일경수의 합계를 내고, 賭錢 액수를 정리한 것이 보통이다.

각도공토안을 통해서는 각종 국유지의 존재 양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근래 이를 이용하여 평안도 지역 軍土 조사의 실체를 밝힌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내장원의 공문서와 민인들의 訴狀 등을 활용하여 군토를 둘러싼 정부 기관 간, 정부 기관과 일반 인민 간의 분쟁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특히 공토안을 통해 국유지 조사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⁹⁾ 앞으로 공토안에 수록된 각종 토지들의 명목과 분포, 경영 방식, 收租, 收稅 등의 정보를 종합함으로써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기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안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行審冊과 개인들이 관에서 등출한 양안이 주목된다. 핵심책은 양안을 등서하여 부세 운영에 활용한 자료로 본 조사를 통해 여러 종류의 핵심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책은, 본 내용은 양안과 동일하지만 당해연도의 작황과 경작 상황을 조사한 裳紙가 붙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함으로써 국가의 부세 부과 기준을 파악할 수 있거니와 핵심책이 등서한 원 양안의 기재 양상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핵심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별 자료와 牧民書를 활용하여 관의 수세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9 ; 박성준, 1998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역둔토 운영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6

27) 이상찬, 1992 「일제 침략과 「황실재정정리(1)」 『규장각』 15 ; 김재호, 1997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재정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8) ‘공토안이란 표현은 본래 1899년 이후 내장원이 역토, 둔토, 목장토 등을 조사할 때 사용한 용어이지만 편의상 1894년부터 1898년까지 만들어진 조사안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29) 김종준, 2009 「1895~1907년 평안도 지역의 ‘軍土’ 조사 작업과 관련 분쟁」 『동방학지』 148

행정 과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³⁰⁾ 그런데 현전하는 행심책을 종합한 결과 官에서 뿐 아니라 민간에서 洞 단위로 양안을 등출하여 활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행심책과 부세 운영의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이 등출한 양안은 토지소유주들이 양안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다. 개인들이 자신의 소유지를 관리하는 문서들은 전답안 등 다양한 형태의 私文書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의 결과 개인들이 所志를 올려, 양안 중 자신의 소유지를 초록한 寫本을 발급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들은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 양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할 자료다.

양안의 목록 작성과 기재 양식 정리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앞으로 양안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수행된 기초적인 자료 조사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다양한 양안을 분류하고 기재 양식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양안의 성격뿐 아니라 양안에 반영되어 있는 토지의 성격과 농업 경영 방식, 소유 관계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번의 공동연구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재검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다. 이 중에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기한 연구도 있으며, 양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안의 활용이나 농업 경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있다.

오인택, 「경자양안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종준, 「광무양안의 자료적 성격 재고찰」은 양안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경자양안과 광무양안의 연구 경향과 쟁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하려는 시도다.

오인택의 연구는 경자양안 연구의 심화 과정을 검토한 위에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양전 논의(양전론의 배경과 목적), 토지 등록 방식(양안의 기재 양식), 토지소유 실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 위에 앞으로의 연구는 단순 통계 분석을 넘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 모색되고 그 결과의 의미가 사회경제사를 넘어서 사회문화사 차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견

30) 이영훈, 1995 「16세기말·17세기초 경상도·평안도의 행심책 二例」 『고문서연구』 7, 한국고문서학회; 최윤오, 2000 「조선후기의 양안과 행심책」 『역사와 현실』 58, 한국역사연구회

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위한 시급한 기초작업으로 경자양안의 탄생, 유통, 소멸의 전체 과정을 복원하고, 이를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각종 양안 사료와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양안과 양안 외의 각종 연관 기록의 수집과 정리, 계묘, 갑술, 경자, 광무양안과 토지조사사업의 비교사가 그것이다.

김종준의 「광무양안의 자료적 성격 재고찰」은 먼저 광무양안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의 구도를 검토하고 주요 논점 중에서 일단락된 것과 향후 과제로 남겨진 것을 구분해 보았다. 이를 통해 광무양안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재고찰이 왜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 살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양지아문 중초본, 정서본, 지계아문본이 공존하는 광무양안의 분포 양상을 재정리하고 각 양안의 형식상의 특징과 양지아문 양안과 지계아문 양안에 기재된 항목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특히 표지 기재사항, 책의 배열, 실결과 진전 파악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광무양안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순의 「조선후기 量案의 작성과 활용」, 서태원의 「조선후기 군영둔토의 연구와 양안」은 구체적으로 양안 자료를 분석한 연구다.

박현순의 논문은 조선후기에 다양한 형태의 양안이 작성되는 양상을 양안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현재 ‘양안’으로 통칭되는 자료 중에는 경자양안이나 광무양안과 같이 국가적인 토지 조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양안도 있으나 종수로는 부세운영에 활용한 행심책이나 궁방·아문, 개인, 문중 등이 양안에서 소유지나 수세지의 필지정보를 등출한 양안이 더 방대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양안의 작성 주체와 작성 과정을 통해 양안을 분류하고, 등출한 형태의 양안 중 행심책, 궁방양안, 개인양안을 주검토 대상으로 하여 작성 주체와 작성 의도, 작성 단위, 형식상의 특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양안이 등출의 형태로 민간에서 부세를 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관리하고 소유지를 경영하는 데에도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서태원, 「조선후기 군영둔토 연구와 양안」에서는 군영둔토 양안을 활용하여 군영둔토의 설치와 양안 작성 과정을 검토하고, 군영 둔토 양안의 기재 양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군영둔토는 군영이 荒蕪地·陳田 등을 개간 경작하여 軍需에 충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현재 다수의 양안도 현존하고 있다. 하지만 군영둔토에 대한 연구가 적을 뿐더러 양안을 활용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존하는 군영둔토 양안을 종합하여 작성 시기와 토지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군영둔토 양안을 작성한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移屬·買入·相換

한 둔토, 군영의 폐지나 창설로 인하여 관리주체가 변한 둔토, 절수하여 개간이나 간척을 한 둔토 등에 대해 토지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양안을 작성하였음을 밝혔다. 아울러 군영둔토 양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折’, ‘冒’, ‘自作’ 등의 실상을 검토하여 이것이 토지의 성격과 관련된 것임을 밝혔다. 이 연구는 군영둔토 양안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영둔토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안을 이용한 연구는 그 연원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대한제국기의 사회 경제 변동을 둘러싼 주요한 논쟁들을 촉발해 왔다. 그러나 양안이 갖는 자료적 한계가 과대하게 부각되고 자료 분석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주로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지역 연구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가 행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새로운 도약을 가져 오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양안의 기초 연구의 성과가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양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양전, 양안, 궁방양안, 행심책

접수일(2010. 8. 31), 심사시작일(2010. 9. 3), 게재확정일(2010. 9. 10)

<Abstract>

General discussion: Current status of studies over Yang'an registers produced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Daehan Empire period, and future prospects

Kim, Ingeol

Analyzing and interpreting Yang'an registers, scholars have fiercely argued with each other over their own differences of perspectives, as we can see from the debate that continued between scholars supporting the theory of 'Internal development' and scholars behind the theory of 'Small-scale peasants as the Majority,' or the debate that occurred over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Gwangmu-era Yang'an register. Such debates were caused because of the scholars' difference in opinions viewing the nature of a particular period's history, but also because of all the different levels of understanding here and there regarding the general nature of the Yang'an registers themselves.

The Kyujanggak Institute of Korean Studies has been engaged in a task of recategorizing Yang'an registers and assorting them with the registers' internal structure, in order to revitalize discussions over the general nature of the Yang'an registers. In this article, current status of the ongoing efforts, the perspectives of previous studies, and future prospects in this area of study, are all examined.

Previous analyses of the Yang'an registers mainly concentrated upon examining the Gyeongja-year register, the Gwangmu-era registers and the Yang'an registers created in ordinary local Eub units. Yet, Yang'an registers created by the land owners or taxpayers show us a much wider variety of formats and contents in terms of land ownership, land management and the utility of the Yang'an registers. In this article, the characteristics of such Yang'an registers are examined, and future options of utilizing them are also speculated upon.

Key Words : Yang'an registers(量案), Land survey(量田), Gungbang Yang'an registers(宮房量案), Haengshim-chaek(行審冊)